

호매칼럼



김 명 화
/교육학박사·동화작가

꽃그늘 아름다운 4월의 끝자락은 새롭게 시작하는 5월 가정의 달을 품고 있다. 산마다 들마다 꽃자리 차지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가벼운 시기다. 집에 가만히 앉아 산하를 바라보면 올리브에서 초록으로 변해가는 봄바람의 속삭임에 마음이 먼저 들쭉거린다.

아침부터 특이 올린다. 무슨 소식인가 하고 열어 보았는데 봄 소풍길을 함께 했던 P 선생님이 천 가방을 만든 것을 특 방에 올렸다.

부지런도 하다. 이른 새벽부터 재봉틀에 앉아서 이렇게 재미있는 발상이 고마워 생각에 잠기다 간단하게나마 답을 보냈다. “부지런합니다. 이 새벽에 벌써 이런 큰일을 하시다니.” 답 특이 사라짐과 동시에 전화벨이 울린다.

P 선생님과 통화하다 보니 어느덧 삼십 분이 훌쩍 넘어선다. 선생님의 부지런함, 재미있는 발상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인생 총량의 법칙이

생각난다.

세상을 살면서 많은 돈은 갖지 못했으나 열심히 일하고 살아서인지 아직은 청춘인 시기에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자신이 부끄러웠다.

이른 아침부터 “오늘은 어떤 놀이를 할까?” 구상하는 선생님의 삶에 감탄하다 보니 한 시간 동안 전화로 티키타카 하게 되었다.

아침에 보내온 P 선생님의 가방은 예술과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췌던 프랑을 이용해 만들었다. 이번 가방에는 작년 소풍 때 찍은 사진이 들어있어 놀라움이 두 배였다.

P 선생님과과는 1년에 두 번 정도 소풍 간다. 매년 소풍에서 도시락 가방을 풀면 주머니에 주머니가 들어있어 가방 푸는 것만 봐도 재미있는 자연이 가득하다.

물건을 푸는 도중에 새 가방이 발견되어 이 가방은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러면 선생님의 입가에 미소

세상에 버릴 것은 없제

가 번지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저번에 누가 준 청바지 주머니가 너무 예뻐서 뜯어다 여기에 부치고 단추를 다니 그 친구가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아 너무 좋아요.”

행복해하는 이야기에 덧붙여 “누구는 버리는 물건을 이렇게 작품으로 탄생하니 놀라운 일입니다.”라는 답에 “세상에 버릴 것이 어디 있던가요?”라는 말을 통해 사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생님이 사는 세상은 신세계다. 누군가는 쓸모없다고 버리는 물건에 생명을 불어 넣어주신다. 버리는 플랑카드, 버려지는 옷도 선생님의 손을 만나면 새롭게 탄생해 우리에게 다가온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브나 허미 엘레프스카 폴란드 작가의 ‘작은 발견’ 그림책이 떠올라진다. 그림책 첫 번째 등장인은 다 쓰고 남은 실패다. 작가는 버려진 실패를

통해 우리의 삶을 그림책으로 이야기한다. “옛날 물건을 파는 가게에서 이 실패를 찾았어요. 누구도 남은 실이 감신 실패를 사지 않았어요. 한때는 제 뭇을 충분히 했을 것이라는 걸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답니다.” 작가는 버려진 실패를 통해 우리의 인생 이야기를 그림으로 보여준다.

작가의 그림책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세상을 살면서 쉽게 쓰고 버려지는 것이 많다. 일화용도 아닌 물건이 일화용이 되어 사라지는 것도 많다. 이브나 허미 엘레프스카의 그림책처럼 P 선생님은 사라져 버릴 물건을 다시 바느질을 통해 탄생시킨다. 쓰레기통에 들어가 환경 오염이 될 물건을 보자기로 만들어 도시락도 쓰고, 물건도 써서 다른 사람에게 나눔을 통해 환경교육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것이다.

P 선생님은 시간이 날 때면 선생님의 보물창고에서 물건을 꺼내 오

늘은 여기에 어떤 스토리를 입힐까 고민한다. 그 고민이 행복하고 노는 시간이 고맙다고 말하는 선생님의 일가에는 웃음꽃이 잔뜩 피어나 있다.

버려진 천으로 보자기를 만들고 소풍 갔던 사람의 추억을 사진으로 새기어 주면서 행복을 두 배로 나누는 선생님의 삶을 보면서 배움의 시간을 갖는다. 선생님의 역동적인 삶을 보면서 그동안 나타내고 게으름에 닫힌 문을 조금씩 열며 기재개를 펴보는 시간을 가져 본다.

봄바람이 세차게 부는 주말에 도시락을 준비했다. 간단하게나마 어릴 적에 맛있게 먹었던 햄도 구워보고 계란말이도 해 본다. P 선생님이 주었던 보자기에 물건을 싸고 작은 주머니에는 숟가락 젓가락을 넣는다. 보자기를 풀 때마다 감탄사를 보내는 사람들의 표정을 생각해 본다. 꽃피는 봄날에 행복 바이러스가 꽃보다 더 아름답게 입가에 번진다.

목포문예회관 기획 연극 ‘레미제라블’ 공연

장발장의 여정 통해 만나는 구원과 희망 메시지...내달 17일 시민문화체육센터

목포시는 오는 2025년 5월 17일 오후 2시와 7시,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대공연장에서 기획공연 연극 ‘레미제라블’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예술경영지원센터의 ‘2025년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 선정작으로 극단 로얄씨어터가 연출을 맡아 공연한다.

연극 ‘레미제라블’은 프랑스 대문

호 빅토르 위고가 무려 16년에 걸쳐 집필한 역작으로,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원제처럼 한 인간의 구원과 용서, 사회적 정의에 대한 질문을 무대 위에 고스란히 담아낸다.

특히 이번 무대는 원작의 고전미를 살리되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해 관객에게 삶의 용기와 희망을 전할 예정이다.

중견·원로배우인 윤여성, 김명수, 임동진, 문영수 등 관록 있는 연

기자들과 김기리를 비롯한 젊은 배우들이 각기 다른 개성과 호흡으로 풍성한 극을 완성한다.

관람은 8세 이상 가능하며, 전석 지정좌석제로 운영된다. 관람료는 1층 2만 원, 2층 1만 원이며, 목포·신안·무안 지역 주민에게는 5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티켓은 티켓링크 또는 목포시 문화시설관리사무소 회관공연팀을 통해 예매할 수 있다.

/목포=김재욱 기자



대동문화재단 설립 30주년 기념 ‘울림’

오늘 빛고을시민문화관서 공연 · 기념식 개최

대동문화재단이 설립 30주년을 맞이하여 29일 특별한 기념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역과 장르, 시대를 아우르는 고품격 공연과 기념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많은 이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먼저 설립 30주년 기념식은 29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에서 열린다. 이 행사는 무료로 진행되며, 참석자들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이 증정된다. 이어지는설립 30주년 기념 축하

공연 ‘울림’은 같은 날 오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같은 장소에서 펼쳐진다.

장사익, 소향, 김강순, 김산옥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출연하여 특별한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유료 공연이며, 티켓 예매는 전화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대동문화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문의 및 예매 전화번호 062-674-6567, 070-4496-2788, 062-461-1500으로 연락하면 된다. /조선주 기자

순천영상미디어센터, 5월 무료상영회 개최

영화 ‘리스트 필름 쇼’ · ‘다섯 번째 방’ 등

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시민들과 따뜻한 감동을 나누기 위해 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에서 ‘윈발, 오펜발’을 주제로 한 가족 상영 프로그램을 선보인

다.

오는 5월 8일 오후 7시 상영되는 영화 ‘리스트 필름 쇼’는 인도의 작은 마을에 사는 9살 소년 ‘사메이’가 영화에 매료돼 꿈을 좇는 과정을

그린 성장 드라마이다. 가족의 반대를 딛고 친구들과 함께 영화를 만들어 가는 ‘사메이’의 여정은 따뜻한 감동을 전한다.

20일 오후 2시에는 전찬영 감독의 ‘다섯 번째 방’이 상영된다.

시댁살이 30년 차 엄마의 삶을 중심으로 3대 가족의 이야기를 담아낸 작품으로, ‘나만의 방’을 향한 엄마의 도전을 통해 가족의 의미를 세세

하게 그려낸다.

특히, 5월 첫째, 둘째 주에는 ‘2025 어린이가 그리는 영화로운 순천’ 사업의 일환으로 어린이를 위한 영화 ‘번개맨 : 더 비기닝’, ‘가필드 더 무비’를 상영한다. 이외에도 ‘어른 김장하’, ‘블랙’, ‘양치기’ 등은 다양한 물품의 모습을 조명하고 가까운 관계를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다. /순천=조순의 기자

2000년 11월 25일 창간(일간) 등록번호 광주 가-8(2000년 11월 10일)		호남매일	www.homae.co.kr
발행·편집인 고제방		주필 서길원	편집국장 최춘의
대표전화 (062)363-8800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신안동 264-1번지)	
사 장 실	(062) 363-0027	편 집 국 장	(062) 363-8800
광 고 국	(062) 363-0005	정 · 경 부	(062) 362-6116
편집 국(FAX)	(062) 362-0078	사 회 부	(062) 362-6226
서울취재본부	(02) 783-8117	문 체 부	(062) 362-6116
인쇄체디벨로라	(031)466-1000	지 역 사 회 부	(062) 362-6226
구독료 한달 : 15,0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새 희 망 새 언 론 새 천 년

푸른 언론의 길을지향하는호남매일과
같이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NEW AGE NEWSPAPER - THE HONAMMAEIL

호남매일

- 호남인과 함께 하는 신문
- 정도를 걸어가는 신문
- 공익을 생각하는 신문

-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 (062)363-8800
-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신안 264-1)
- ▶기사제보 · 독자견견 •TEL : (062) 363-8800
- FAX : (062) 362-0078

- ▶광고문의 •TEL (062) 363-0005
- ▶서울지사(취재본부) : 010-8803-1472

- ▶인터넷 참여 : <http://www.homae.co.kr>

- ▶E-mail : homamnews@hanmail.net
homamaeil@naver.com

지 국 안 내

총 장.....223-4123
무 등.....224-4188
동 부.....234-4235
학 등.....225-0651
광 천.....374-2120
화 정.....374-3713
금 호.....376-7153
쌍 촌.....371-9684

상 무.....381-5310
서 부.....651-0004
송 암.....362-4102
능 성.....362-4102
진 월.....671-7276
봉 선.....675-5530
중 양.....521-5640
중 흥.....433-1503
양 산.....574-3745
문 암.....521-4270

오 치.....261-9461
문 흥.....261-9462
일 곡.....573-3200
동 문.....525-8894
두 암.....266-1920
첨 단.....971-1920
신 창.....955-0451
월 곡.....941-9174
송 정.....010-5524-3638

지 사 안 내

목 포...010-8718-1234
순 천...010-9656-1383
광 양...010-9656-1383
장 흥...010-9193-6322
담 양...010-9067-4076
곡 성...010-5602-1785
구 레...010-8597-0053
보 성...010-3626-4776

화 순...010-2430-5055
영 광...010-9860-5489
완 도...010-5066-4708
장 흥...010-5665-8354
신 안...010-2028-4800
강 진...010-3608-0472
장 성...010-3610-7824

함 평...010-3616-4282
영 암...010-4604-3742
무 안...010-2050-0136
진 도...010-8525-4567
해 남...010-3471-6542
광 산...010-7613-4320
고 흥...010-4644-8383